



최고급 명품 코스, 이젠 퍼블릭으로 즐긴다

금강 센테리움 컨트리클럽

금강 센테리움 컨트리클럽은 국내 유일의 스코틀랜드 풍 명품 코스를 자랑하며 충북권 최고의 명문 골프장으로 사랑받아 왔다. 그리고 지난 10월 14일, 더 많은 골퍼로부터 사랑 받고자 퍼블릭코스로 전환하는 변신을 시도했다. 이제 누구나 손쉽게 이 명품 코스에서 환상의 버디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글 한중훈 | 사진 김정선

서울에서 한 시간 이내, 뛰어난 접근성

사과의 고장으로 유명한 충주는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를 타다가 여주 분기점에서 중부내륙 고속도로로 갈아타고 약 20분만 달리면 충청북도 충주시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체만 없다면 서울 강남권을 기준으로 한 시간이면 충분히 충주에 닿을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요건 뿐 아니라 대한민국 내륙의 때 묻지 않은 자연 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충주는 분명 매력적인 도시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 매력적인 도시에서 골프의 본 고장 스코틀랜드 풍의 코스 위에서 라운드를 펼친다면 분명 상상만 해도 즐겁다. 이제 이 즐거운 상상을 더 쉽게 더 즐겁게 즐길 수 있게 됐다. 금강 센테리움 컨트리클럽이 퍼블릭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명품 코스, 이젠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그동안 회원제로 운영됐던 국내 유일의 정통 스코틀랜드 풍 코스였던 금강 센테리움 컨트리클럽이 지난 10월 14일 시작으로 퍼블릭 코스로의 전환을 알렸다. 금강 센테리움 관계자는 "골프의 대중화에 맞춰 많은 골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퍼블릭으로 과감한 변신을 시도했다. 퍼블릭으로 변신했다고 해서 그동안 펼쳐왔던 최상급의 서비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금강 센테리움을 찾는 고객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질적으로 놓아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부킹이 쉬워졌다는 점이다. 퍼블릭으로 전환을 하면서 인터넷 상으로 부킹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유선을 통해 부킹이 이뤄졌다. 이제는 금강 센테리움 홈페이지에 접



금강 센테리움의 자랑인 3단그린.



대장경 속에서 고풍격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사계절 변하지 않는 빼어난 풍경.

속해 무료로 회원가입을 하고 부킹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모바일을 이용해 어플로 부킹 신청을 하고 금강 센테리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통 스코틀랜드 코스를 국내에서 맛보다

금강 센테리움 컨트리클럽은 약 50만평의 대자연 위에 각각 9홀씩 구성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코스를 합쳐 총 27홀 규모로 지어졌다. 영국의 PGA 전문 디자이너 로버 헨트에 의해 설계된 금강 센테리움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지형의 특성을 찾아냈고, 자연의 기운을 느끼며 라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코스 디자인에 중점을 뒀다. 뿐만 아니라 고난이도의 언돌레이션과 향아리 벙커 그리고 야생 러프는 영국 정통 스타일의 코스를 그대로 국내에 옮겨 심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코스 특성상 공력이 결코 싶지만은 않다. 빼어난 경치에 넋을 잃고 라운드를 즐기다 보면 평소 실력보다 더 높은 스코어 카드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강 센테리움 컨트리클럽은 골퍼들이 남은 거리를 쉽게 알 아 볼 수 있도록 야드목이 코스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각각의 코스마다 색다른 분위기

금강 센테리움의 코스는 코스마다 컨셉과 분위기가 달라 하나의 골프장이지만 골퍼들은 마치 3개의 골프코스에서 라운드를 펼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스코틀랜드 코스는 거친 바람과 마주한 하이랜드의 분위기가 뒤흔 풍겨난다. 바람에 출렁이는 러프가 야생에서 라운드를 즐기는 듯 착각을 불러올 정도니 말이다. 하지만 첫 홀부터 티샷에 신중 해야한다. 1번 홀은 파4에

길이가 380m로 결코 짧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왼쪽에는 계곡과 벙커가 도사리고 있고, 오른쪽은 깊은 러프가 자리잡고 있다. 자칫하면 첫 홀부터 소중한 볼을 골프장에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스코틀랜드 코스에서 가장 난이도 어려운 홀은 바로 3번 홀이다. 파4 379m의 이 홀은 시각적으로 거리가 짧아 보이지만 오르막 경사가 심하다. 특히 세컨샷 지점에 자연림이 조성되어 있어 훅이 날 경우 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또한 슬라이스가 날 경우 볼이 오른쪽에 있는 계곡에 빠질 수도 있다. 페어웨이 중앙을 보고 길게 공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오르막이 심하므로 현명한 클럽 선택이 중요하다.

스코틀랜드 코스에서 두 번째로 난이도가 있는 홀은 바로 7번 홀이다. 파4 354m인 이 홀은 내리막이 심해 홀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세컨샷 지점 왼쪽과 오른쪽에는 벙커와 자연림이 조성되어 있다. 슬라이스가 날 경우 볼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잉글랜드 코스

잉글랜드 코스는 자연 연 그대로의 야생숲의 풍광을 살려 낸 것이 특징이다. 라운드를 즐기며 다양한 야생화와 푸른 나무숲을 함께 만끽하며 마치 삼림욕을 하듯이 차분하게 라운드를 즐겨볼 수 있다.

첫 홀부터 환상적인 조망과 시야가 뚫려있어 골퍼의 마음까지도 확 뚫리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코스 공략은 결코 호락호락 하지만은 않다.

잉글랜드 코스의 1번 홀은 파4이지만 433m의 결코 만만치 않은 거리를 자랑한다. 당연히 이 코스에서 가장 어려운 홀로 손꼽힌다. 오른쪽은 OB지역이므로 티샷을 날릴 때 중앙보다 약간 왼쪽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 확

GOLF COURSE



금강 센테리움의 코스 곳곳에 정통 스코틀랜드 풍의 향아리 벙커가 도사리고 있다.



금강 센테리움의 깊은 러프는 골퍼의 본고장 스코틀랜드에서 라운드를 즐기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트인 경치에 넋을 잃다가는 티수를 두 배로 잃을 확률이 큰 홀이다.

375m 파4, 4번 홀은 멀리 보이는 그늘집의 풍경이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페어웨이 앞쪽으로 계곡이 도사리고 있어 시각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왼쪽으로는 자연산림이 조성되어 있어 정확한 티샷을 날려야 하는 부담도 있다.

마지막으로 잉글랜드 코스의 6번 홀은 왼쪽으로 휘어진 블라인드 파 5홀이다. 왼쪽에 있는 긴 러프와 오른쪽 벙커를 조심해야 한다. 또한 어프로치 지점은 페어웨이가 좁아 세컨샷에서 한 번에 공략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금강 센테리움에서 가장 아름다운 웨일즈 코스

웨일즈 코스는 금강 센테리움에서 가장 아름다운 코스로 손꼽힌다. 러프와 아일랜드 홀의 묘미를 느끼며 라운드를 즐길 수 있고, 각각의 홀마다 색다른 풍경을 만끽해 볼 수 있다.

웨일즈 코스에서는 2번 홀을 조심해야 한다. 파 3홀이지만 거리가 215m나 된다. 평평한 직선의 홀로 보일 수 있지만 왼쪽에 심한 경사가 있다. 그리고 그린 오른쪽 앞에는 사이드 벙커가 그린을 겹겹이 가로 막고 있다. 이어 315m 3번 홀은 티샷 지점 전방에 호수가 있어 티샷을 날릴 때 심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어 웨일즈 코스의 5번 홀은 파 5, 535m로 왼쪽으로 휘어진 블라인드 홀이다. 어프로치 시 그린의 왼쪽 앞에 있는 사이드 벙커를 피해서 공략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홀이다.

웨일즈 코스의 가장 어려운 홀은 마지막 9번 홀이다. 파 4, 427m인 이 홀은 왼쪽으로 클럽하우스와 계곡을 끼고 있다. 페어웨이 오른쪽은 스코틀랜드 풍의 깊은 러프가

자리잡고 있고, 왼쪽은 계곡이라 훅이 날 경우 마지막까지 볼을 골프장에 기증하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6성급 호텔에 버금가는 클럽하우스

환상적인 라운드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6성급 호텔에 버금가는 품격 높은 클럽 하우스에서 최고의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금강 센테리움의 클럽하우스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세련된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특히 클럽하우스 공간 곳곳에 클래식과 모던 스타일의 가구 및 소품들이 이 곳을 찾는 고객들에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그리고 골퍼의 편의를 고려한 동선, 특급호텔 부럽지 않은 레스토랑과 대연회실, 비즈니스 룸 등은 골프 뿐 아니라 각종 모임 장소로도 손색없다.

실속 만점 다양한 이벤트

금강 센테리움 컨트리클럽은 더 다양하고 많은 고객이 명문 골프 코스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기존 회원들에 그동안의 고마움의 표시로 홈 커밍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또한 12월 한 달 동안 인터넷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요금을 적용해 금강 센테리움의 명품 코스를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무기명 선불카드 제도를 운영하며 보다 더 저렴하게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오렌지, 블루, 블랙 세 종류로 구성된 선불카드는 개인 또는 단체 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1일 18홀, 27홀, 36홀 등 무제한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용인 오렌지 카드는 500만원, 4인용 블루 카드는 1600만원, 법인 주말용 블랙 카드는 4000만원이다. **TG**



6성급 호텔에 버금가는 품격 높은 클럽하우스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물론 세련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또한 레스토랑, 대연회실, 비즈니스 룸을 갖추고 있어 각종 모임의 장소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